

중소기업들, 소송 증가 우려 '집단소송제' 반대

중기중앙회, 정부 확대 도입 의견조사...10곳 중 7개 답해

정부가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경우 '블랙컨슈머'나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 등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한 비용 증가 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

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를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38.6%) ▲법률 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시 우려하는 사항 (복수응답)

·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	72.8%
· 합의금·수임료 노린 기획소송 증가	56.6%
· 법적대응 위한 비용 증가	24.6%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	7.8%

■정부·국회에 바라는 대책

· 집단소송제를 개별법에 선별적 도입	38.6%
· 법률 서비스 지원	31.8%
· 이종 처벌 방지 안전장치 마련	30.0%
· 소송허가요건 강화	27.4%

비스 지원(31.8%) ▲이종 처벌 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등을 들었다.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의 35%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입었고,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계속되는 규제 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3.79 (+56.47)
▲ 코스닥	844.80 (+17.83)
▼ 금리(국고채 3년)	0.927 (-0.028)
▼ 환율(USD)	1128.20 (-9.50)

김장비용 하락세

3주 전보다 10만원 떨어져

김장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달 초 김장비용(4인 기준)은 여전히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4일 기준 4인 가족 김장비용은 30만9000원으로, 지난 달(10월14일)보다 23.3%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주 동안 김장재료로 많이 쓰이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 13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다. 가격 조사는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진행됐다.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한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40만2810원(3주 전)→33만9659원(2주 전)→32만3234원(1주 전)→30만9130원(11월4일)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와 무 가격은 3주 전보다 각각 52%와 28% 하락했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4일 기준 7만9874원, 무 10개 가격은 2만4222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김장용 굴(2kg 4만637원)과 작황이 부진한 고춧가루(1.86kg 6만6458원)는 각각 8.7%와 6% 상승했다.

aT는 김장재료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비축용 견고추를 집중 출하하고 있으며,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11월과 12월에 배추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1인·신혼부부 맞춤 '상무 모아미래도 레이크' 분양



한국자산신탁, 원룸·투룸 등 29층 600여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모아종합건설(주)과 남광건설(주)이 공동시공예정인 '상무 모아미래도 레이크'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상무 모아미래도 레이크'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971-1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로 들어선다. 총 696실의 원룸과 투룸을 비롯해 다락형과 근린생활시설 29실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도시철도 1호선 운천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상무지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인근 롯데마트와 CGV, 메가박스, 5·18기념공원, 운천호수공원, 광주시청을 비롯해 병원들도 밀집해 있어 쇼핑과 문화, 여가, 자연,

의료서비스 등 생활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청역이 개통되면 상무역과 시청역 프리미엄으로 가치 상승과 지하철 교통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상권활성화 등 미래가치도 높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상무 모아미래도 레이크는 1인 가구에 맞는 원룸형부터 신혼부부까지 생활이 가능한 투룸형, 다락형(일부호실) 등 다양한 소비층에 맞게 설계된 선택의 폭이 넓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수세권, 역세권, 공세권 등 프리미엄을 모두 갖췄고, 상무지구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운천호수공원이 인접해 탁월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할 만한 입지환경으로 최근 불고 있는 투자 대안 상품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상무 모아미래도 레이크는 이달 중 운천역까지 인근 광주시 서구 차평동 241-16에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순천 문성마을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금상



순천 문성마을(순천농협)과 고흥 옥섬마을(홍양농협)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제3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동상을 수상하고 상금 총 4500만원을 받았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중소기업인대회 열려...대통령상 등 51명 포상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5일 '2020 광주전남 중소기업인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수상자 및 관계자만 참석했으며, 대통령 표창(1명)과 국무총리 표창(3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19명) 등 51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대통령 표창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른김을 직접 수매해 전 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를 거쳐 고품질의 조미김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홍도식품 오인석 대표가 수상했다.

김석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정착돼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혁신의 주축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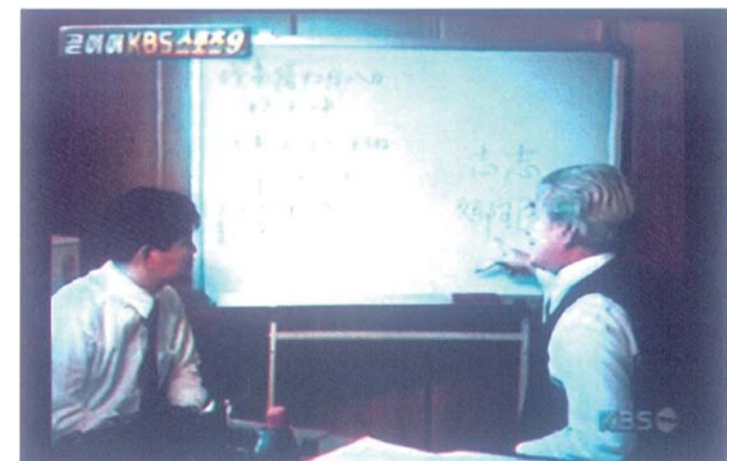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